



인도 : 가 족 중

I 부 예/ 배/

예배선언..... **인 도 자**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01장**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것 주의크신 은혜라 한이없는 주의사랑 어찌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손이 항상살펴 주시고 모든일을 주안에서 행동하게 하시네
2 몸도맘도 연약하나 새힘받아 살았네 물뱃듯이 부으시는 주의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산길 헤맬때 주의손을 굳게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다시 뵈올날이 날로날로 다가와 무거운짐 주께맡겨 벗을날도 멀잖네
나를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가 족 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은혜 안에 하나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가족들이 남은 2025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계획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믿음이 새로워지고 선한 결심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누가복음 14:13,14** **인 도 자**
13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설 교 **그리스도인다운 삶** **인 도 자**
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 서로 나누고 베푸는 일에 넉넉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과 나눔이 단지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절에 마땅히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잔치를 벌이고 사람을 초청할 때 “권력자, 부자, 유명인”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잔치에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 곳에서도 잔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사람을 초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추석의 풍성함이 나와 내 가족만의 즐거움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쁨은 나눌 때 더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명절의 기쁨을 이웃과 나눌 때 그 기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눔을 내가 나누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풀 때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며 한다면 그건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이 사람도 나중에 이만큼 베풀겠지, 라고 계산하는 순간, 이미 선행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눔과 베품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려받으려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나눔과 베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갇음을 받겠음이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 갇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갇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갇음이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갇아주십니다. 다윗이 자기 경험을 통해 알려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시 37:25) 하나님은 의인이 베푸는 선행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갇아주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단순히 가족의 풍요와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명절은 단순히 세상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나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찬 송 288장 다 같 이

-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포부 나/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면서 감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 1) 선친들이 남겨주신 아름다운 삶과 가르침을 전달해줍니다.
- 2)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지를 나눕니다.
- 3)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 서로에게 감사할 것을 한두 가지씩 나누며 고백합니다.

2025년 추석 감사예식

